

Code States Project #1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과
테마주들 간의 관계와
주가예측



Code States
AI Bootcamp 01기
유병욱

문제제기

한국경제

5년마다 열리는 '대선테마株 도박판'

📖 A24면 1단 | 기사입력 2021.06.01. 오후 6:48 최종수정 2021.06.02. 오전 12:24

기사원문

스크랩

👍👎 14

💬 20

역대 테마주 움직임 분석해보니

"1년전부터 묻지마 급등...당선 후 급락"

15대 대선까진 제지·광고주 들쭉
16대 '수도이전 이슈' 계룡건설 급등
17·19대 지지율따라 롤러코스터

"대부분 펀더멘털 무관...주의를"

17대 대선 전 1년간 테마주 추이



19대 대선 전 1년간 테마주 추이



· 테마주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이벤트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동조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상장주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육성책을 발표하면 그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상승하며, 2020년 COVID19와 같이 특정 질병이 확산되면 그를 예방 또는 퇴치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식시장에는 5년에 한 번씩 큰 '도박판'이 열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될성부른 후보에 베풀하는 대선 테마주장(場)이 그것이다. 올해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과거 대선 테마주를 보면 대개 대선 9~12개월 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직전부터 거품 꺼지기 시작

출처 : 한국경제

대선 테마주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대선 9~12개월 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대선 직전 고점 회복을 노리다가 실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식시장이 으레 예정된 이벤트를 미리 반영해 나가듯, 대선 테마주 역시 대선을 미리 예상해 움직이는 것이다. 계룡건설은 16대 대선 1주일 전부터 다시 급등했으나 9개월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우리들휴브레인도 19대 대선 8개월 전 기록한 고점을 문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당선 약 2주 전부터 서서히 거품이 꺼지고 원래 주가로 돌아가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화공영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약 2주 전 정점을 찍고 급락하기 시작했고, 우리들휴브레인은 그보다 앞선 한 달 전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 때마다 펀더멘털과 무관한 테마주장에 편승하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오늘도 대선 테마주에 손을 댄다.

표본과 데이터 선정

분석에 이용하는 테마주들은 주요 대선주자별 검색어("윤석열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가나다 순)의 네이버 검색 상위 결과에서 복수로 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테마주식은 윤석열 테마주 15개, 이낙연 테마주 15개, 이재명 테마주 15개입니다.

윤석열	NE능률	아이크래프트	덕성	원익큐브	푸른저축은행	효성오앤비	모헨즈	승일	아이오케이	깨끗한나라	부방	서연	서연이화	서연탑메탈	원풍
이낙연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칼	이월드	남성	SDN	서원	대한해운	주연테크	남화산업	부국철강	남화토건	HSD엔진	삼부토건	코디엠	국영지앤엠
이재명	에이텍티앤	수산아이엔티	프리엠스	CS	동신건설	일성건설	슈프리마에이치큐	토탈소프트	신라에스지	카스	오리엔트정공	인터지스	한국팩키지	형지엘리트	아즈텍W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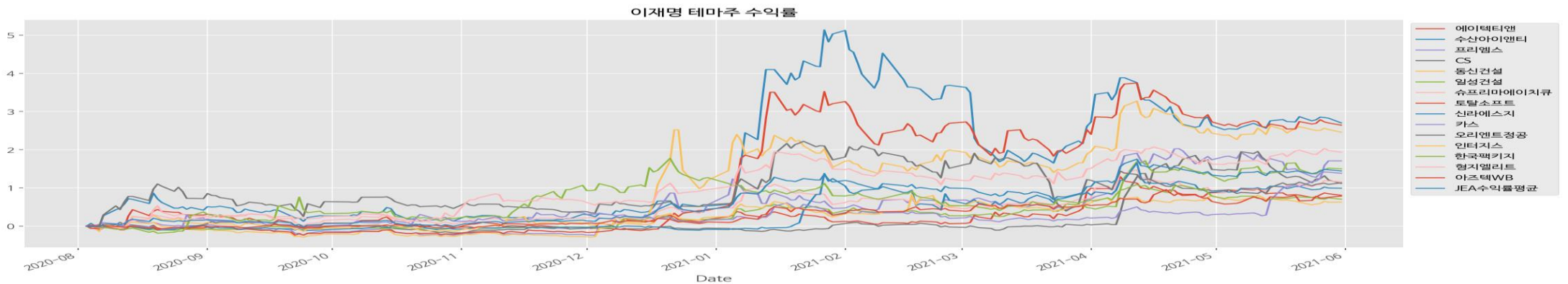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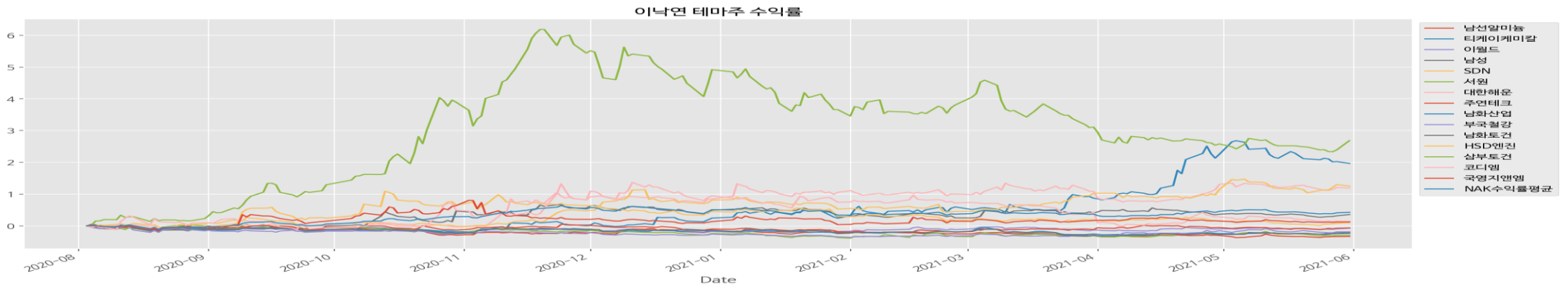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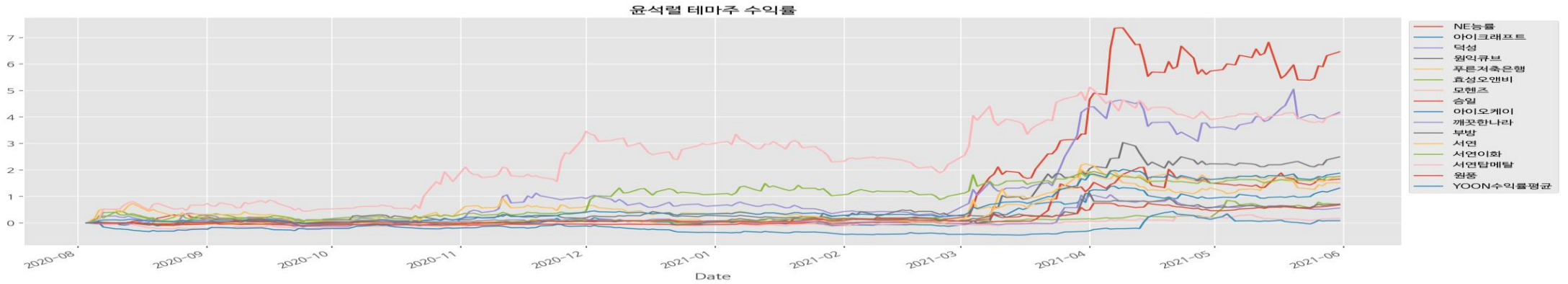
위의 각 테마주들을 FinanceDataReader 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각 주가데이터를 손쉽게 사용하였습니다.

가격 데이터

- 해외주식 가격 데이터: AAPL(애플), AMZN(아마존), GOOG(구글) 등
- 국내주식 가격 데이터: 005930(삼성전자), 091990(셀트리온헬스케어) 등
- 각종 지수: KS11(코스피지수), KQ11(코스닥지수), DJI(다우지수), IXIC(나스닥 지수), US500(S&P 5000)
- 환율 데이터: USD/KRX(원달러 환율), USD/EUR(달러당 유로화 환율), CNY/KRW: 위엔화 원화 환율
- 암호화폐 가격: BTC/USD (비트코인 달러 가격, Bitfinex), BTC/KRW (비트코인 원화 가격, 빗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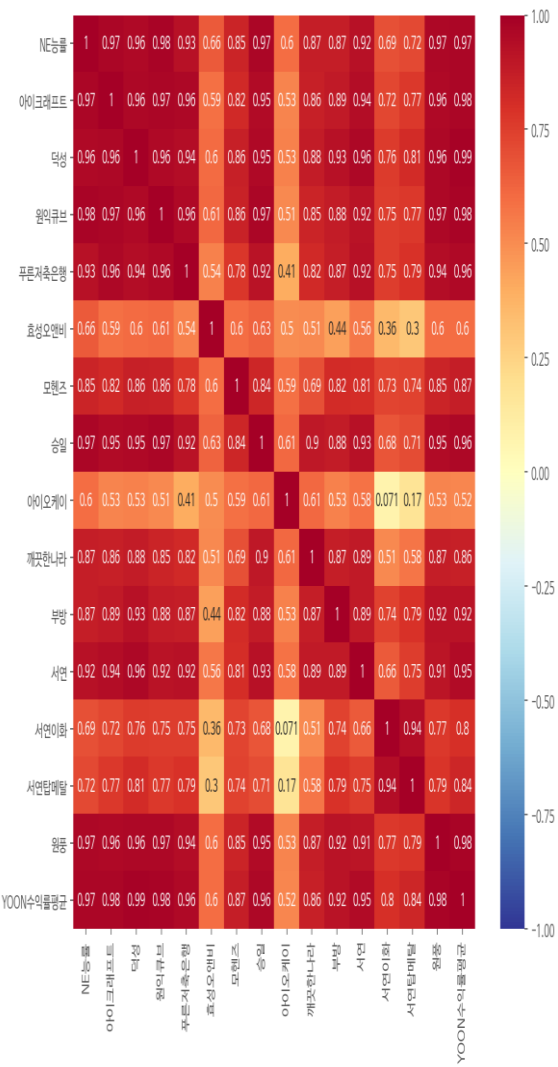
테마주 수익률 그래프

수익률 : 첫날인 2020-08-01으로 나머지 가격을 나눠주고 -1을
해줌으로써 수익률을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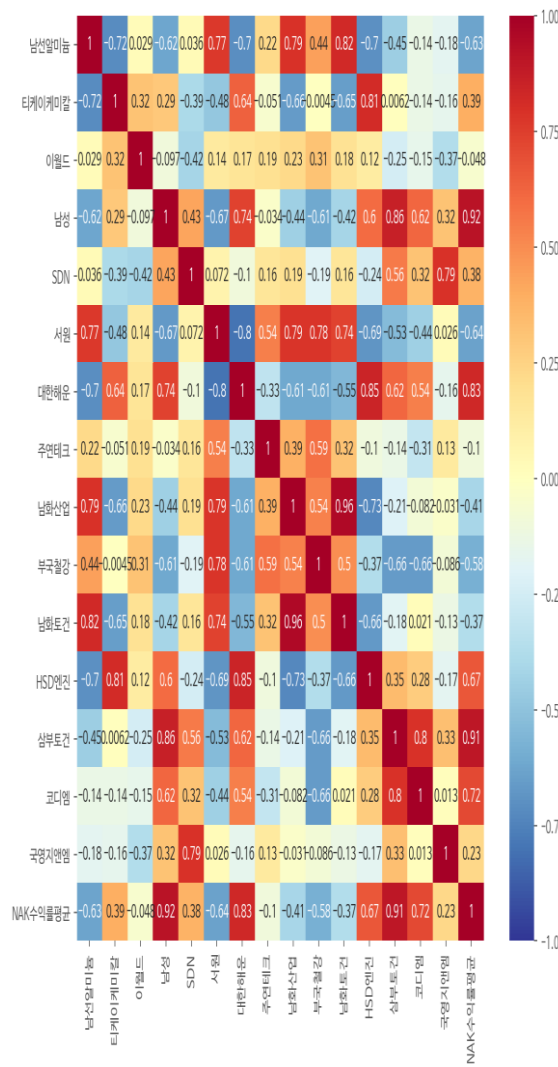


대권 주자들의 테마주간 상관계수와 Heatmap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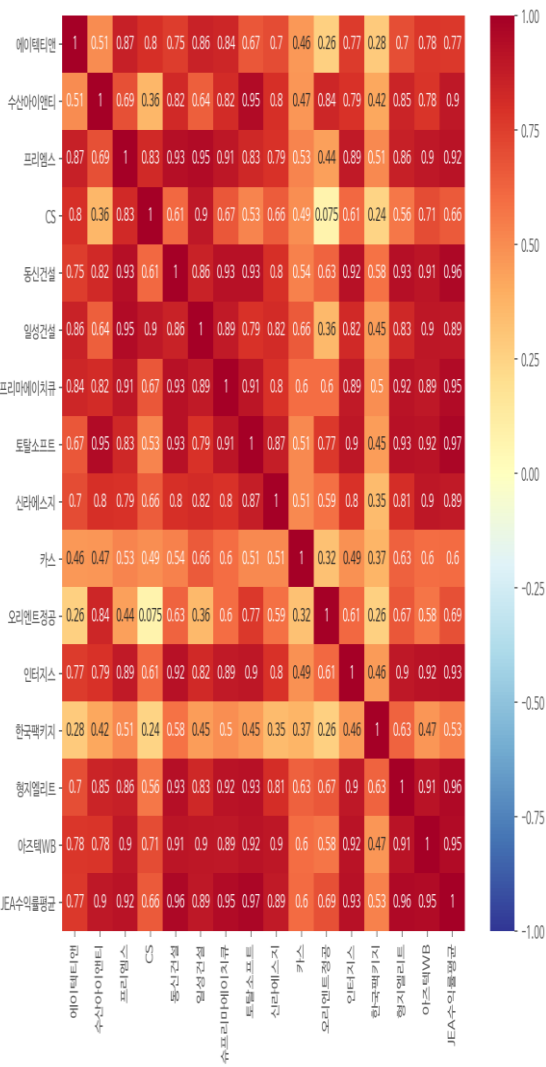
윤석열 테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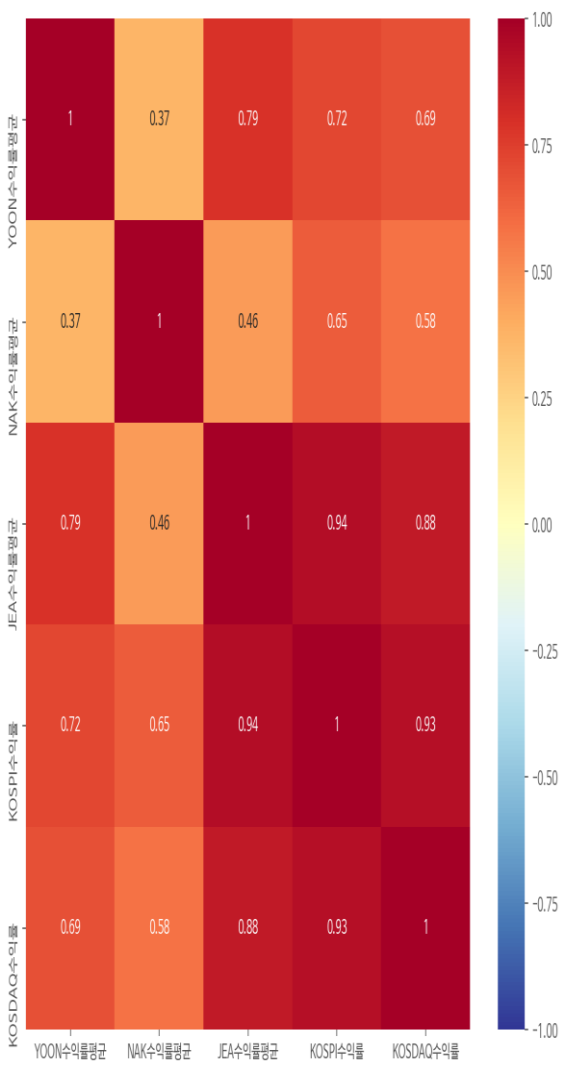
이낙연 테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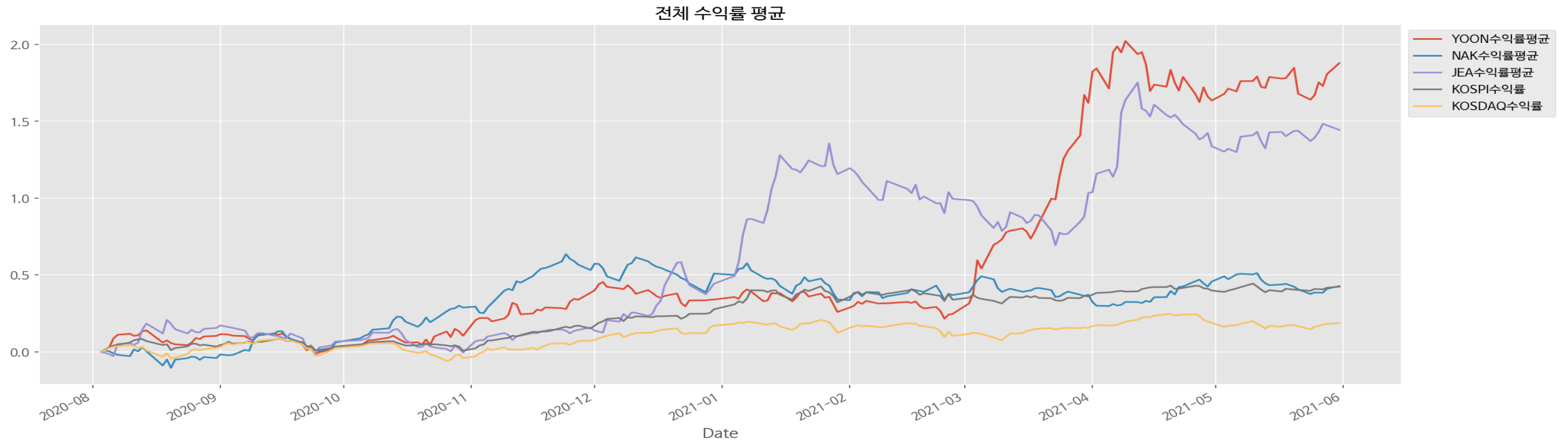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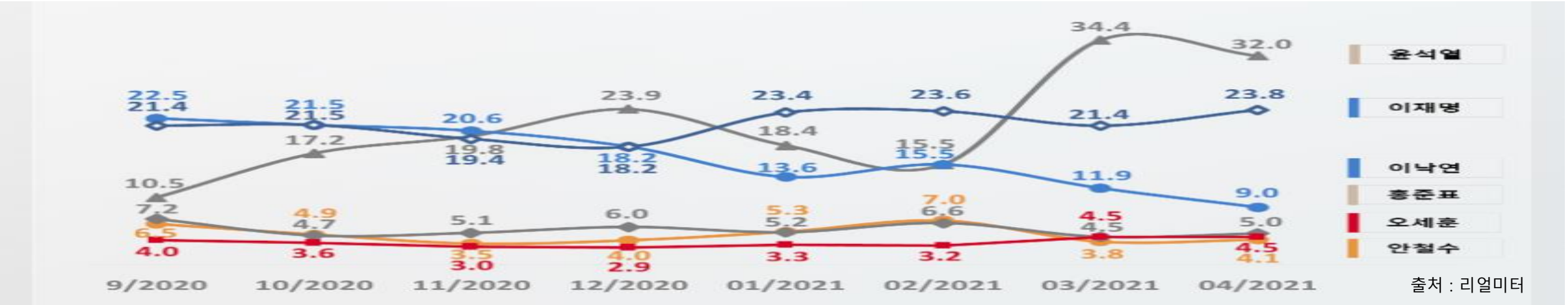
이재명 테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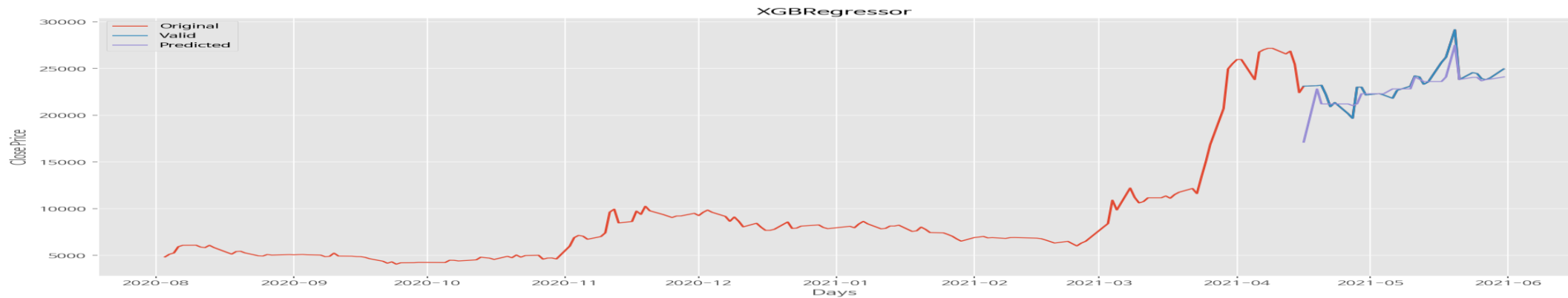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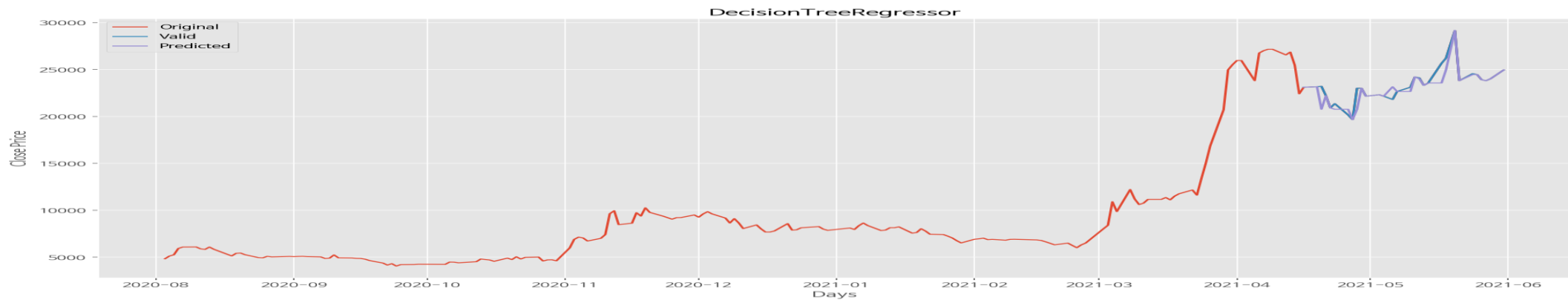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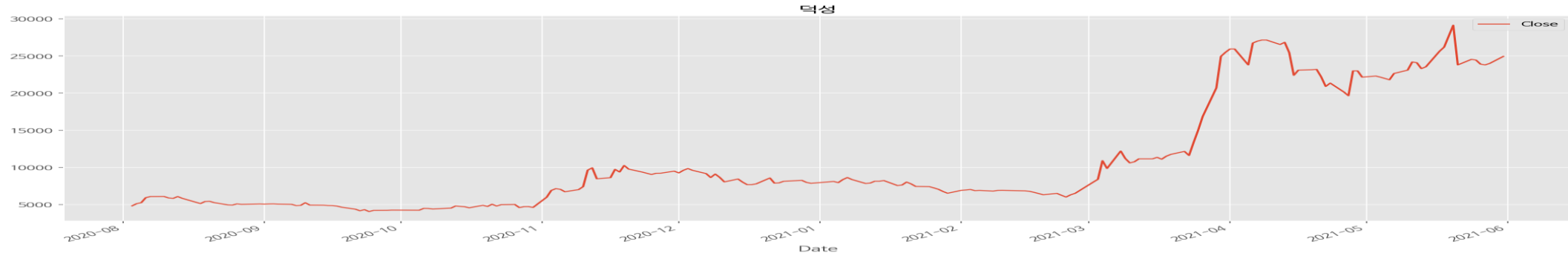
수익률과 KOSPI, KOSDAQ 수익률



지지율 그래프, 종가 수익률 평균과의 관계



수익률 예측



고찰

-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 이후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도 해당 후보자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내의 정치테마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특히 국내의 정치테마주는 변동성이 높은 저가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의 정치테마주가 높은 투기적 성향을 지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거래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 지지율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프의 흐름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를 판단 했다 할 순 없지만 추세는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테마주의 특성상 KOSPI나 KOSDAQ 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 투자라 함은 기회를 포착하여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뒤의 대선을 통하여 기회가 생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관참은 투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벤트로 지지율이 달라질지 모르기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